

은행도 회사도 비대면... 코로나19가 만든 '언택트환경'

4대銀 모바일뱅킹 거래 2774만건 대부분 비대면거래 수수료 안받기로 금융회사, 분산·원격근무 등 대책마련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금융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금융 역시 대면을 꺼리면서 '언택트' 거래가 선호되고, 금융권 근무형태 역시 일부 지점 폐쇄를 넘어 비상시 비대면 체제로 갈 수도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은행 지점방문 NO...인터넷·모바일로 해결

코로나19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은행에서 사람을 접촉하기 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언택트' 거래가 늘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주(2월 16~22일) 인터넷·모바일뱅킹 거래건수

는 2774만87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만건이 넘게 늘었다.

은행들도 비대면 거래 관련 수수료를 당분간 안받기로 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은행 지점 직원들을 위해서도 비대면

거래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안 받고 있다.

하나은행도 대구·경북지역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 채널 수수료를 1개월간 전액 면제기로 했으며, 추후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대구·경북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수수료를 다음 달 말까지 전액 면제한다.

대구·경북지역의 은행 내점 고객수는 확연히 줄었다. 대구·경북지역 은행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만 대구·경북지역은 영업은 물론 일상 생활도 가능한 자

제하다 보니 대면을 비롯해 모든 금융 거래가 줄었다"고 전했다.

◆근무도 '언택트'...원격접속해 각자 집에서

향후 코로나19 관련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일부 지점이 줄줄이 폐쇄조치되면서 금융사들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으로 금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통신망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망분리하고,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금융회사 일반 임직원까지 규제를 완화해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토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대체근무자·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산센터를 이원화하고, IT부문과 자본시장본부는 분리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ICT업무별 핵심인력을 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배치하고, 우리은행은 남산타워와 서울연수원에 대체사업장을 마련했다. 하나은행도 대체사업장을 확대하는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의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전환가보다 시가 낮아도 CB 주식 전환

>> 1면 'CB, 잔치는 끝났다'서 계속

CB만기 도래... 상환 어려운 기업 있어 코스닥 상장사 감사의견 '비적정' 예상 부채비율 높아지면 상장폐지 가능성

한 코스닥기업 IP 담당자는 "전환가액을 계속 낮추면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해 주주회사로서 이해가 상충한다"면서도 "상환을 제때 못해 상장폐지 당하는 것보단 전환가액을 낮추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 상환 잇따라

최근 기관투자자들은 전환가액보다 시가가 낮은 상태인데도 CB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세차익은 커녕 손실을 보는 셈이다.

이는 최근 라임 사태를 시작으로 CB를 담은 사모펀드에 투자자들의 환매요

구가 쏟아지고 있어 운용사가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만기까지 기다려도 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불안감도 커진 상태다. 해당 기업의 주가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에스모머티리얼즈는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를 공시했다. 당시 전환가액은 주당 3690원으로 CB투자자는 6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는 551원이다.

CB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 라임자산운용은 현재 추심 전문 법무법인을 동원해 자산 회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코스닥 상장사의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新)외감법의 영향으로 비적정 의

견을 받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에 쌓인 CB도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회계법인은 CB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감사를 더 간간하게 본다. 만기 때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CB 발행금액을 모조리 부채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상장폐지 심사 조건이 될 수도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는 "CB는 일정부분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 처리한다"면서 "주식 관련 사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모조리 부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CB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만기일이 돌아오는 코스닥 상장사 채권금액은 1조8978억원인데 이중 절반가량인 8232억원이 한계 기업의 발행 물량으로 집계됐다.

/손영기 기자 sonumji301@

보험업, 코로나19 피해 소비자 위해 금융지원

생명·손보협, 위기 극복 지원방안



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보험료·대출 원리금 납부 유예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생보업계는 여기에 더해 계약대출이자도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손보업계는 대출원리금 상환과 채권추심 등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등의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급하고 코로나19로 관광이나 여행 등이 취소되면 여행 관련 소상공인의 보증보험 납입보

험료를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 생·손보협회는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상품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이런 '공포 마케팅'이 발생하지 않게 자정노력도 벌인다.

아울러 매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보험 관련 자력시행을 잠정 중단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집체교육도 연기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변화하는 시장에 발맞춰
기업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진공 기업인력 애로센터

중소벤처기업 인력부족문제
중진공이 해결해드립니다.

1. 상세정보 확인 2. 일자리 커리어 매칭 3. 면접/평가 4. 결과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KOSME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란?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구축한 중기 인력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인선 One-stop 지원체계입니다.

기업인력애로센터 구인-구직 매칭 프로세스

구인기업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홈페이지)

구인조건 등록
기업특성 반영

채용정보 게시
체계적인 분류/정보

구직자

개인정보 등록

선호기업/직무 등록
지역/규모/업종/연봉 등

구직정보 게시
취업희망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청년 채용지원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 http://job.kosmes.or.kr ☎ 1899-3001

연장고용 숙련인력 양성사업

모집대상
기업: 근로시간 단축(연2회)기업 등 근원대 중소기업
구직자: 경력 1년 이상 실업자 혹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지원내용
직무교육: 인력 당 집합교육(2일 이내 1회)
현장실습: 인력 당 훈련수당 월 60만원 (총 3개월)
현장실습: 기업 당 교육비 1회 50만원 (8시간/일, 최대 12회)
채용연계: 실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연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참여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참여기업 파일 다운로드 후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job@kosmes.or.kr 발송
참여자: 중진공 취업매칭 시스템(job.kosmes.or.kr)에서 희망기업 후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사후관리센터
☎ job@kosmes.or.kr ☎ 1899-3001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채용단

모집대상
기업: 구인수요가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구직자: 만 34세 이하 청년구직자
*군현장의 경우 복무 기간 신청 시 최대 만 30세 이하

지원내용
직무교육: 인력 당 집합교육(2일 이내 1회)
현장실습: 인력 당 훈련수당 월 60만원 (총 3개월)
채용연계: 실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연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참여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참여기업 파일 다운로드 후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job@kosmes.or.kr 발송
참여자: 중진공 취업매칭 시스템(job.kosmes.or.kr)에서 희망기업 후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사후관리센터
☎ job@kosmes.or.kr ☎ 1899-3001

지역별 연락처

구분	지역별연락처	연락처	구분	지역별연락처	연락처
서울	서울지역본부	02-2106-7411	경북	경북지역본부	053-210-9921
	서울남부지부	02-2023-4301		경북남부지부	053-660-9830
인천	인천지역본부	02-769-6411	대전	대전지역본부	042-709-3010
	인천남부지부	032-837-7020		대전남부지부	042-280-8030
경기	경기지역본부	032-560-2361	충청	충청지역본부	061-729-1566
	경기남부지부	031-260-4903		충청남부지부	053-606-8411
충청	충청지역본부	031-760-9011	전남	전남지역본부	054-440-5921
	충청남부지부	031-760-0602		전남남부지부	054-288-7345
대전	대전지역본부	031-260-4926	전북	전북지역본부	053-603-3320
	대전남부지부	031-920-6731		전북남부지부	052-703-1120
충청	충청지역본부	042-281-3730	경남	경남지역본부	051-630-7421
	충청남부지부	041-589-4581		경남남부지부	051-745-5932
경남	경남지역본부	043-230-6811	제주	제주지역본부	055-270-9761
	경남남부지부	043-841-3611		제주남부지부	055-310-6611
강원	강원지역본부	033-269-6931	제주	제주지역본부	055-751-2902
	강원남부지부	033-649-9372		제주남부지부	064-754-5152